



생각에 쫓시다

☞ '사랑한다' 는 말

누군가를 향해 '사랑한다' 고 말하면,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.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차올라 가슴이 뜨거워지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'사랑한다' 고 말했기 때문입니다.

말은 입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모양이기 때문에 '사랑한다' 고 말할 때 마음의 모양이 사랑의 모양으로 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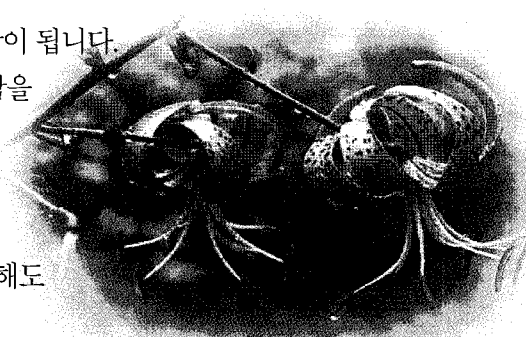
그 사람을 향해 좋은 기대를 하게 되고,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서툴고 부족해도 예뻐 보이며, 마음이 아파도 넉넉히 견디게 됩니다.

'사랑한다' 는 말은 과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제나 오늘 보다 미래를 기뻐하면서 좋은 일을 기다리게 됩니다.

그리고, '사랑한다' 는 말은 그 사람을 향한 기대와 기쁨 뿐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나에게도 놀라운 용기와 인내와 화목과 평안과 기쁨과 열정과 겸손과 찬란함과 설렘과 만족과 감사를 줍니다.

작고 단순한 말 같지만 '사랑한다' 는 말은 이렇게 크고 놀라운 큰 힘이 있습니다.

지금 '사랑한다' 고 말하십시오.



<출처:인터넷좋은생각>

공단 임직원 경조사

- 결혼을 축하합니다.
- 보령지부 최길엽 부장 차녀 (2008. 2. 21)



알리는 말씀



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홍보지입니다. 공단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,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 하오니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보내 주십시오.

연락처 → TEL 032-260-2226 / FAX 032-260-2275 / E-MAIL vicadpr@kst.or.kr